

구성원 소개

박철 변호사는 판사 출신 변호사로 민·형사분야 소송을 전문으로 합니다.

박철 변호사는 현대그룹, 외환은행 등 13개 채권은행간 재무구조개선약정체결 및 공동제재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, A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사건, B시장 뇌물사건, C은행장 횡령배임사건 등 민사와 형사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주목도가 높은 굵직한 사건을 다수 수행한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.

박철 변호사는 1988년 판사 임용 후 2010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퇴임했습니다. 두 번(1998, 2001)의 대법원 연구법관(현 재판연구관),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, 서울고등법원 상사전담 부장판사를 역임했습니다. 대전고법 부장판사로 근무할 당시 선고한 판결문이 '아름다운 판결'이라는 이름으로 인터넷을 통해 널리 회자되기도 하였습니다. 박철 변호사는 대표변호사(2019~2021)로서 바른의 성장을 이끌었으며, 현재 민사판례연구회, 한국법철학회 회원으로도 활발하게 활동 중입니다.



TEL.
02-3479-2326

MAIL.
cheoll.park@barunlaw.com

학력

1978	대구대건고등학교 졸업
1982	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
1982	제24회 사법시험 합격
1984	사법연수원 제14기 수료
1985	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

최근업무사례

[의료&제약] 1200억 원대 생동성시험 조작 사건
대법원 파기 환송 판결 받아내
[형사] 김00 금융분석원장 뇌물수수등 사건

주요업무분야

금융산업

경력

1988~1998	서울민사지방법원, 서울형사지방법원, 대구지방법원, 서울가정법원, 서울고등법원 판사
1998~2000	대법원 재판연구관
2000~2001	대구지방법원 부장판사
2001~2003	대법원 재판연구관
2003~2006	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,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
2006~2007	대전고등법원 부장판사
2007	사법연수원 수석교수
2007~2010	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(상사전담)
2010~2018	법무법인(유한)바른 구성원 변호사
2019~2021	법무법인(유한)바른 대표변호사

주요 업무 및 활동

형사

- A 국회의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
- B 시장 뇌물사건 및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
- C 은행장 횡령·배임 사건
- D 원장 뇌물사건

민사

- 현대그룹, 외환은행 등 13개 채권은행 간의 재무구조개선약정체결 및 공동제재결의 효력
정지 가처분 사건